

2017년이 온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벌써 1년의 마지막 분기인 10월...!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70일이 지나면 2018년입니다.

2018년 모두가 기다리는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2017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1	2	3	4	5	6	7	1	2	3	4				1	2	3	4										
8	9	10	11	12	13	14	5	6	7	8	9	10	11	5	6	7	8	9	10	11	2	3	4	5	6	7	8
15	16	17	18	19	20	21	12	13	14	15	16	17	18	12	13	14	15	16	17	18	9	10	11	12	13	14	15
22	23	24	25	26	27	28	19	20	21	22	23	24	25	19	20	21	22	23	24	25	16	17	18	19	20	21	22
29	30	31					26	27	28					26	27	28	29	30	31		23	24	25	26	27	28	29
																					30						
MAY							JUNE							JULY							AUGUST						
1	2	3	4	5	6		1	2	3					1							1	2	3	4	5		
7	8	9	10	11	12	13	4	5	6	7	8	9	10	2	3	4	5	6	7	8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11	12	13	14	15	16	17	9	10	11	12	13	14	15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7	18	19	20	21	22	23	24	16	17	18	19	20	21	22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25	26	27	28	29	30		23	24	25	26	27	28	29	27	28	29	30	31		
														30	31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1	2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8	9	10	11	12	13	14	5	6	7	8	9	10	11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5	16	17	18	19	20	21	12	13	14	15	16	17	18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2	23	24	25	26	27	28	19	20	21	22	23	24	2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9	30	31					26	27	28	29	30			24	25	26	27	28	29	30
																					31						

그거은 바로!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리는

"평창올림픽" 입니다.

평창, 강릉, 정선에서 열리
는 2018년 평창 올림픽은
15개 종목이 열리는데요.





올림픽이 주는 스포츠 스타의
탄생, 선수들이 주는 감동은
우리가 올림픽
에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무조건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만
이끌까요?

2010년 캐나다 밴쿠버올림픽

밴쿠버 지역의 관광객은 올림픽 개

최국 선정 이후, 2007년 대비 40

만 명으로 관광객 추이가 4% 증가

했고 올림픽 기간 숙박시설 이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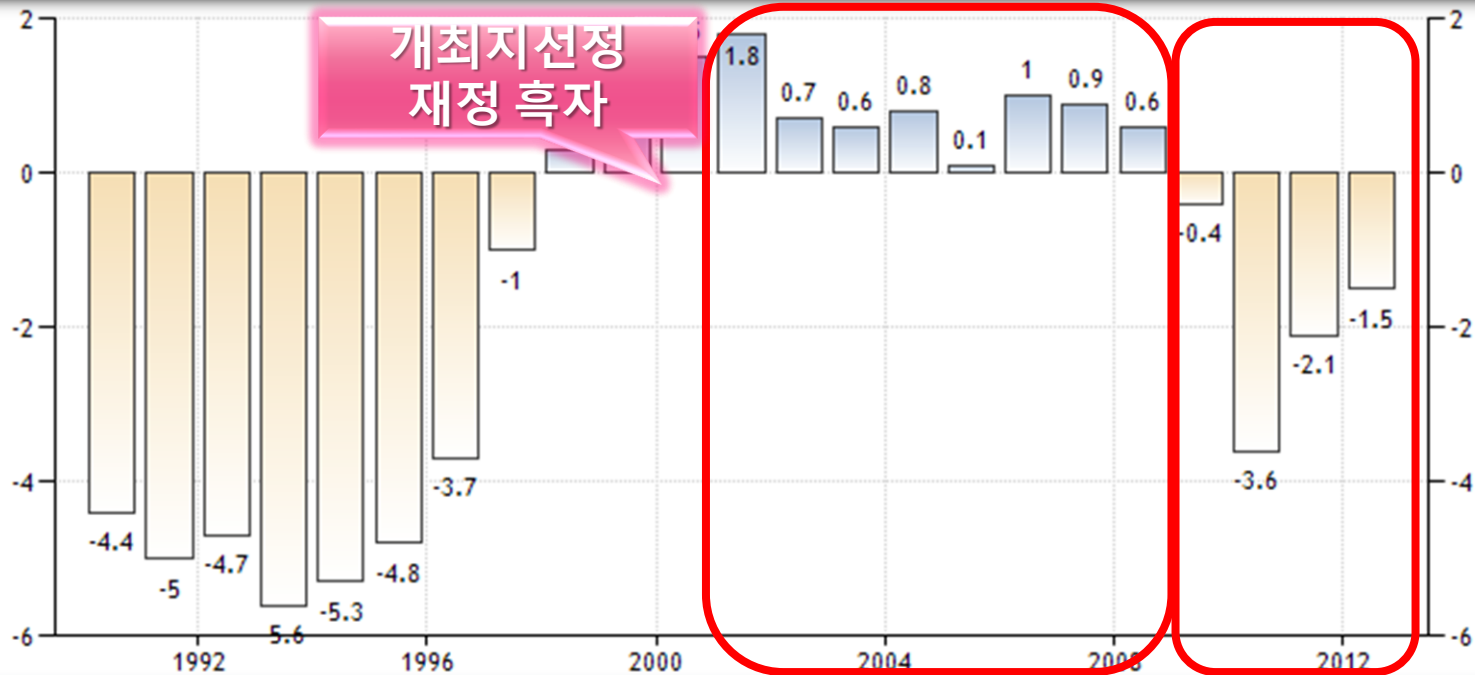
2005년 대비 10% 가 증가했습니

다.



하지만 캐나다는 올림픽 개최지가 선정된 후 국가 재정이 흑자였지만 각종 경기장과 주변 고속도로, 경기장 주변 시설, 주택 등의 건설이 필요하면서 결국 올림픽 후 국가 재정이 적자가 됩니다.

올림픽 이후
재정 적자



베쿠버 올림픽의

사례는 다른 나라만의 일

이 아닙니다. 2018 올림픽

을 앞두고 경기장 3곳의 사후관리

관련으로 강원도가 사후관리 선

정을 못하고 직영할 시 재정 압

박을 예상하는데 이 문제가 해

결되지 못한다면 평창올림픽은

베쿠버 올림픽과 비슷한

올림픽의 사례로 남게 됩니

다.

올림픽 4개월여 앞...경기장 3곳 사후관리 주체 선정 난항

강원도 경기장 직영때 재정압박 상당 적자 올림픽 우려

이상현 기자 | 입력 : 2017.09.18 14:51:31 수정 : 2017.09.18 15:22:24

강원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3곳에 대한 사후관리 주체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올림픽 개최 직전까지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 도가 사후관리를 떠안게 돼 재정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강원도에 따르면 내년 2월9일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경기장(개·폐막식장 포함) 13곳 중 신설경기장은 90% 후반 대 준공률을 보이며 속속 위용을 드러내고 있으나 강릉 아이스하키 경기장과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아직 사후관리 주체가 미정인 상태로 확인됐다.

하키 경기장은 당초 대명에서 사후관리를 맡아 아이스하키팀 홈구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4월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이 밖에도 역대 올림픽 개최국이 보도한 보도수익과 실제 수익과 다른 점, 평창 내의 환경 파괴까지 ... 정부가 부디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하루 빨리 이 경기장에서 감동을 주는 선수들, 또는 새로운 스포츠 스타의 탄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